



김진영의 일본물류 답사기

물류업에 종사하다 보면 가끔 물류이론과 현업과의 괴리를 많이 느끼게 된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제3자물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4자물류를 표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그러나 물류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수행하는 물류서비스 수준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에 맞는 현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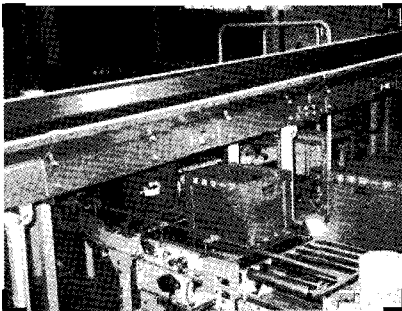
물론 선진화된 개념을 비전으로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빨리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론과 현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일본 물류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에 일본 물류현장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물류현장은 개선을 통한 운영시스템이 정교하다.

내가 일본의 3PL 물류기업인 트랜콤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은 잘 정제된 운영시스템과 물류환경이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차량높이에 맞춘 물류센타 도크의 높이였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센타를 만들 때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물류서비스를 고려하여 크로스도킹을 위해 물류센타의 도크높이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크로스도킹을 위해서 한 쪽 도크는 간선차량을 위한 11톤 전용 도크를, 다른 도크는 배송을 위한 5톤 차량이 작업하기 쉽게 만들어 효율적인 물류센타의 구조를 설정해 놓았다.



트랜콤 하프자키 물류센타 자동화 시설

그리고 화물의 특성에 따라 물품을 운영하는 방식도 달랐다. 이를테면 전자 조달물류의 경우는 눈에 띄게 정보화 및 기계화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채산성과 정보화를 통한 개선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있어 인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강식품을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교한 물류시스템과 완전 자동화된 기기들로 구성되고, 업무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 되어 있어 작업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물류현장을 보면 일본의 좋은 물류하드웨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현장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지로 효율화 및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선진국으로부터 신기술과 좋은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스템이 그 나라 문화의 산물이며, 그 문화속에서 정제되고 개선되어 온 방식인데, 우리가 여과없이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다 보니 좋은 요소들은 많지만 전체적인 효율화에는 못 미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는 사고와 실행에 대한 GAP에 의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일본의 물류서비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저마다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서비스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운송부분에 있어 하부구조가 개인업자화 되어 있으며, 지입제, 위·수탁, 용차 등 형태는 다르지만 개별에 대한 운영구조로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물류서비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텐진지구공동물류(주)의 사업모델을 예로 보면 텐진(天神)이라는 특정 지역에 택배의 송화물만 담당하고 자차 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Yellow Bird'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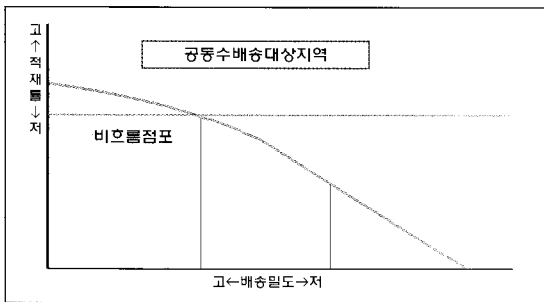


도심내 영업차량용 전용주차장 및 주차미터기
(자동센서에 의해 관리 운영)

트렌콤도 자체적으로 공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여 자신들이 특화시켜야 할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공동화영역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비교우위의 역량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현업담당자가 쓴 책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시내서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다지 큰 서점이 아니었는데도 물류부분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특히 실무자들이 쓴 책이 많았다.



공동수배송 대상 지역

제조업체/유통업체의 물류담당자가 펴낸 책, 물류개선을 실무자 입장에서 쓴 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책들이 많았다. 이러한 물류서적들을 보면서 '일본이 물류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런 부분이 일본을 강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 전문가라고 하면 실지로 물류를 담당해서 그 업무를 해 본 사람보다는 교육과정에서 물류부분을 접하고 바로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회사로 입사해 물류전문가가 된 경우가 많다.

물론 그들의 지식이 낮다거나 비전문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류부분의 최대 화두중에 하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의 도입, 학자들의 비전설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업 물류담당자들이 물류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을 수행한다면 물류의 질과 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의 일본물류답사기를 마칠까 한다.



<김진영 약력>

(주)한국로지텍 물류사업 2팀 과장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중)